수업이 끝나고 나는 학생회실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밤에 있는 학생회 활동까지는 시간이 남는다. 그렇다고 집에 들렀다가 다시 학교에 오긴 귀찮고.

은혜 선배도 학생회실 편하게 써도 좋다고 했으니 안에서 기다려도 괜찮겠지.

끼익.

“어? 선배도 일찍 왔네요?”

학생회실 안에서 채아람이 가방을 풀고 있었다.

“응. 여기서 기다리려고. 너는?”

“저도 그러려고요.”

“아, 응. 그렇구나. 그럼 볼일 봐.”

나는 채아람이 앉아있는 소파 말고 책상 쪽으로 걸어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둘만 있으면 불편할 테니까 여기서 핸드폰이나 해야지.

영화나 한 편 보면 시간 딱 좋겠다.

요즘 볼만한 영화가 뭐가...

“근데 선배. 저녁은 어쩌실 거예요?”

“저녁?”

“네. 학생회 하기 전에 먹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밤에 배고플걸요?”

아, 맞다. 저녁밥.

“선배도 밥 생각은 까먹었죠? 저도 처음 학생회 할 때 그랬거든요.”

“그러게. 아예 까먹었어.”

어쩔지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나가서 사 먹고 돌아올까?

“짜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죠.”

채아람은 가방을 부스럭거리더니 컵라면 여러 개를 꺼냈다. 컵라면 종류가 하나하나 다 달랐다.

“학생회용 비상식량!”

“밤에 학생회 끝났을 때 배고프면 먹으려고 준비했어요. 초콜릿 먹어도 배는 안 차잖아요.”

그렇긴 하지. 열량은 채워도 배가 안 차면 허기감이 있으니까.

“밖에 춥게 있다가 돌아와서 먹으면 맛있겠네.”

“그쵸? 근데 래솔 쌤한테 들키면 혼나려나?”

“도래솔 선생님이면 봐주지 않을까?”

“막상 물어보면 ‘학교에서는 안 돼!’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선배.”

“응?”

“어디 가요?”

학생회실 밖으로 나가려던 나를 채아람이 멈춰 세웠다.

“저녁 먹으러 가는데?”

“라면은요?”

“그건 네가 산 거잖아. 난 나가서 먹고 올게.”

“에이! 그러지 말고 같이 먹어요!”

채아람이 소파 옆을 팡 쳤다.

“아냐. 나 신경 쓰지 말고...”

팡팡!

“밖에서 간단하게 먹고 올...”

팡팡팡!

팡팡팡팡!

“....같이 먹을까?”

“네!”

압박감에 못 이겨 채아람이 앉아있는 소파로 갔다.

“제가 혼자서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라면은 혼자서 먹어야 맛있잖아.”

“맛은 있죠. 근데 혼자 먹으면 영양소를 섭취하는 느낌이잖아요.”

“같이 먹으면 밥을 먹는 기분이고.”

그런가? 좀 알기 힘들다.

혼자 먹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별로 와닿지 않는데.

“자! 선배는 뭐로 드실래요?”

“다들 뭐 좋아할지 몰라서 다양하게 사긴 했어요.”

채아람이 사 온 컵라면 종류가 많기는 했다. 맛도 겹치지 않게 골랐는지 다양하긴 한데...

“이건 대체 뭐야?”

“라임향 왕컵라면이래요. 무슨 이벤트로 나왔나 봐요.”

좋아. 저거 말고 다른 걸로 하자.

“나는 이걸로 할게.”

“오. 왕컵라면 오리지널. 그것도 맛있죠.”

미안. 사실 다른 라면은 다 꽝인 것 같았어.

“저는 요걸로!”

채아람은 설마 하던 라임향 왕컵라면을 집어 들었다.

“...진짜 그걸로 하게?”

“네. 무슨 맛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런 건 인플루언서나 사는 줄 알았는데.

사는 사람이 있긴 있었구나. 그것도 내 앞에.

“그럼 내가 물 받아올게.”

“아, 그동안 제가 라면 준비해둘게요.”

밖으로 나가, 복도에 있는 정수기에서 포트에 물을 받았다.

라면 끓이라고 학생회실에 놔둔 건 아니겠지만 덕분에 편하네. 끓는 물 2인분은 나오겠다.

물을 받고 돌아가니 채아람이 라면 스프까지 다 뿌려뒀다.

포트를 켜고 나도 다시 소파에 앉았다.

“맛있겠다~”

채아람은 흥얼거리며 포트가 끓는 것만을 기다린다.

어떻게 라임향 왕컵라면이 기대되는 걸까. 특이하기도 하지.

“됐다!”

끓는 스위치가 떨어지고 채아람이 잽싸게 포트를 가져왔다.

물을 붓고 왕컵라면 뚜껑을 닫고 다시 기다리는 시간이 찾아왔다.

“...근데 벌써 라임 냄새가 나네.”

묘하게 상큼한 향기가 테이블에서 풍기기 시작했다. 절대로 라면과 어울리지 않는 냄새다.

“그쵸!? 맛도 기대되지 않아요? 선배도 한 입 먹어볼래요?”

“사양할게.”

“에이~ 먹어보면 맛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묘한 라임 냄새가 나기 시작한지 3분 뒤.

“선배? 슬슬 열죠.”

“그럴까?”

둘이 동시에 왕컵라면을 열었다.

잘 익은 맛있는 컵라면의 냄새는...

“우아악! 라임 냄새 장난 아냐!!”

압도적인 라임의 향에 묻혀버렸다. 생기던 식욕도 뚝 떨어질 정도다.

입맛이 더 떨어지기 전에 내 것이나 먹어야겠다.

젓가락을 까고 먹으려는데 채아람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안 먹어?”

“장유유서잖아요.”

“1살 차이인데 뭔 장유유서야.”

“먼저 드세요~”

채아람의 말대로 나는 라면 한 젓가락을 퍼서 입에 넣었다.

배가 고팠는지 몸은 곧바로 라면에 반응했다.

입안에 퍼지는 매콤한 라면의 맛과 뜨거운 국물.

그리고

상큼한 라임의 향.

“아하하하!!!”

채아람이 배꼽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래. 왠지 라임 냄새가 진하다 싶었는데.

“...스프 바꿨어?”

“네!”

당당하게 범행을 고백한 채아람의 눈엔 하도 웃어서 눈물이 달려있었다.

“선배.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맛없어.”

“아하하! 그럼 저 반만 주세요. 제 것도 선배 반 드릴게요.”

채아람이 자기 뚜껑에 라면 반을 담아서 넘겨줬다.

“원래 내가 먹을 게 그거거든?”

그래도 얘가 사준 거니까. 나도 왕컵 뚜껑에 내 라면 반을 채아람에게 덜어줬다.

채아람은 받은 라면을 과감하게 한 입 먹었다.

“우와! 진짜 맛없다!!”

“선배 더 드실래요?”

“싫어.”

결국 둘이 라임향 라면을 반씩이나 먹어 치웠다.

...라임 때문에 라면 맛은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배는 불렀다.